

남성 육아 휴직 증가... 4명 중 1명은 남성



▲ 남성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원·등교 연기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근로자였다.

10일 '뉴시스'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1만 2040명으로 전년 동기(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남성 근로자는 2만7,423명(24.5%)이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 전년 동기(2만

2,297명) 대비로는 23.0%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1,403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2019년 2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추이를 보면 1만2,042명→1만7,665명→2만2,297명→2만7,423명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그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추세였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영세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제도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 3507명이었다.

지난달 취업자수, IMF 이후 최대폭 감소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고용 쇼크'가 일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 58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천 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기간이다.

1월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36만 7천명), 도·소매

업(-21만 8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 3천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는 20대(-25만 5천명), 30대(-27만 3천명), 40대(-21만명), 50대(-17만명), 60세 이상(-1만 5천명)까지 모든 업종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6만 3천명), 일용근로자(-23만 2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5만 8천명)가 많이 줄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천명 늘어 157만명에 달했다. 이는 실업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다.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p나 뛰었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1.8%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 7천명 늘어난 1천 758만명이다. 1999년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변신한 공중전화 부스



▲ 거리의 공중전화 부스가 오토바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으로 변모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개인 휴대전화 보급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거리의 공중전화 부스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전기 시설이 깔려 있는 데다가 접근성도 좋아 이용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11일 'YTN'에 따르면 교환 스테이션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플랫폼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을 전기오토바이 라이더 고객에게 위치를 지정해 주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환 스테이션에서 30초 내에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 준다. 방전된 배터리를 넣고 충전된 것으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된다.

한 오토바이 배달원은 "우린 시간이 돈인데 어디 가나 충전할 걱정이 없이 배달할 수 있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륜차는 2020년 8월 기준 등록대수가 227만대이며 매년 평균 2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한 이륜차 대수만큼 미세먼지도 늘어났다.

미세먼지는 50cc 이상 이륜차 1대가 소형승용차(1,600cc 미만)보다 2배 수준으로 더 많이 배출하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연간 일산화탄소는 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배를 더 배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현재 부산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스테이션은 앞으로 2년 안에 5천 곳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가든 그로브 8유닛 년 수입 \$120,036 방1 화1x1 SOLD \$1,850,000	브레아 2유닛 년 수입 \$38,400 방2화1x1 방1화1x1 Commercial Zone 다운타운 근처, 포텐셜 많음 편리한 위치, 좋은 환경 \$689,000	가든그로브 4유닛 년 수입 \$72,600 방3화2X1 방2화2X3 최고 구성요건 좋은 환경, 위치 \$1,299,000	플라센티아 5유닛 년 수입 \$61,200 방3화1X1 방2화1X1 방1화1x3 교통 편리, 포텐셜 많음 \$690,000	애나하임 6유닛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풀러튼 5유닛 년 수입 \$98,400 방2화1 x 4 방1화1 x 1 대학 근처, 리모델링 주방 100% Occupancy \$1,598,000	라하브라 4유닛 년 수입 \$83,580 방2 화2 x 4 1962년생 편리한 교통, Big Patio 100% Occupancy \$1,230,000
오렌지 4유닛 년 수입 \$97,920 방3 화2x1 SOLD \$1,550,000	샌타아나 6유닛 년 인컴 \$116,340 방2 화1.5X3 방1 화1X3 Cap 4%, 1031 Exchange 차고, Renovated 교통 편리, 환경 좋음 \$1,825,000	부에나팍 4유닛 년 수입 \$78,200 방2 화1x1 SOLD \$1,300,000	애나하임 6유닛 년 수입 \$128,304 Cap 4.52% 방2 화2X6 좋은 인컴, 좋은 구성 요소 1031 Exchange \$2,045,000	로스앨미토스 6유닛 년 수입 \$151,200 House 방5 화2.5 x 1 방2화1x1, 방2화1x4 집 한채(Cottage) + 아파트 최고 학교, 렌트 선호 지역 교통 편리, 100% Occupancy \$2,565,000	부에나팍 7유닛 년 수입 \$165,600 방2화2 x 6 방3화2 x 1 New Kitchen & Bath New Air conditioning 교통중심, 편리 위치 \$2,350,000	산타애나 6유닛 년 수입 \$116,340 방1화1 x 3 방2화1 x 3 Garage, 교통편리 동네 좋음 \$1,825,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